

삼성전자,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링’ 첫 공개

AI 모바일·네트워크 생태계 소개

갤럭시S24 등 전시관서 체험 가능
갤럭시북4 시리즈와 연결성 뽐내
개인화된 건강 가이드 기능 추가
차세대 네트워크 솔루션도 선보

삼성전자가 전세계 통신 시장에 높은 AI 경쟁력을 자랑한다. 모바일 시장을 혁신한 갤럭시AI는 물론,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링과 AI 네트워크 기술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콘그레스(MWC) 2024’에 참가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갤럭시AI로 시작한 새로운 모바일 경험과 함께 차세대 네트워크 혁신 기술, 그리고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링도 처음으로 공개하며 앞세운 광범위한 생태계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우선 삼성전자는 지난달 성공적으로 출시해 ‘역대급’ 판매 성적을 기록 중인 갤럭시S24를 비롯해 갤럭시AI를 확대 적용 예정인 갤럭시S9와 갤럭시S23 등을 선보이고 다양한 AI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피아 전시장에 528평 규모 전시관에서다.

갤럭시AI 조형물이 입구에 섰으며, ‘실시간 통역 공간’을 시작으로 ‘서클 투 서치’와 ‘노트 어시스트’, ‘생성형 편집’과 함께 어두운 콘서트장 콘셉트 공간에서는 프로비주얼 엔진으로 성능을 대폭 높인 ‘나이토그래피’ 등 대표적인 기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갤럭시북4 시리즈와 연결성도 보여 준다. 갤럭시S24시리즈에서 녹음한 음성 텍스트로 변환해 바로 갤럭시북4로 바로 전송하고 편집하고 저장된 연락처를 검색할 수 있는 등이다.

삼성전자 갤럭시S24는 출시 직후 폭발적인 판매를 기록하며 시리즈 중 가장 많은 수준, 3500만대 전후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최초 ‘하



삼성전자 MWC2024 전시관

이브리드AI’인 갤럭시AI 덕분, 글로벌 모바일 업계도 애플 ‘온디바이스 AI’ 탑재에 나서면서 전체 스마트폰 시장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AI 성공에 이어 웨어러블 시장도 혁신에 도전한다. 지난 언팩에서 처음 공개했던 갤럭시링 실물을 처음으로 전시한다.

갤럭시링은 반지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로, 언제 어디서든 불편없이 착용할 수 있는데다가 더 세밀하게 건강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블랙과 골드, 실버 등 3개 색상으로 9개 사이즈로 제작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링과 함께 새로운 헬스기능도 추가하며 생태계 확산에 힘을 더한다. 개인화된 건강 가이드를 제공하는 ‘마이 바이탈리티 스코어’와 목표를 독려하는 ‘부스터 카드’ 등이다.

스마트싱스도 함께한다. 갤럭시 워치와 TV를 연동해 삼성헬스 콘텐츠로 운동을 하거나 투약 시간 알람과 조명을 켜는 등 시나리오도 소개한다.

삼성전자 AI 기술은 네트워크 사업에도 활용된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AI와 소프트웨어 기반 차세대 네트워크 솔루션을 소개하며 네트워크 사업 확대 기회도 모

색한다. AI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원 배포 및 운영까지 직접 하는 ‘네트워크 자동화 솔루션’과 AI 기반 에너지 자동 절감 솔루션, 5G 기지국 성능과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이다. 5G 다중 입출력 기지국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결합해 소모 전력을 30% 절감하면서 데이터 처리용량을 늘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선보인다.

이 밖에도 ▲자체 개발한 고성능 신규 네트워크 칩셋 라인업 ▲5G 어드밴스드(5G Advanced) 규격을 지원하는 최신 기지국 등 고성능·소형·저전력의 다양한 기지국 라인업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업한 클라우드(Cloud) 기반 End-to-End 네트워크 솔루션 등을 선보인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지난 언팩에서 처음 공개한 삼성전자 갤럭시 링

SKT, ‘텔코 AI 세상’ 비전 제시

GTAA 협력 구체화해 선배
거대언어모델 앞세운 혁신
오픈랜 최적화 기술 알리기도

SK텔레콤이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MWC2024에서 ‘텔코(통신사) AI 세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또 세계 통신사 연합 협력을 확대하고 AI 활동 무대를 글로벌로 본격 확장한다.

SK텔레콤은 이달 26~29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2024에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세계 텔코 연합인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TAA)’ 협력을 구체화하고 실생활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보인다.

SK텔레콤은 피라 그란비아 전시장 제3홀에 전시 부스를 꾸렸다. 3홀은 MWC 관람객이 가장 많이 찾은 핵심 전시관으로 글로벌 경쟁한 ICT 기업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올해는 삼성, 인텔, MS, 도이체텔레콤, 퀄컴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자리 잡았다.

SK텔레콤은 ‘AI, 변화의 시작점’이란 큰 주제를 바탕으로 텔코가 만들어갈 AI 기술들을 전 세계에 소개할 계획이다.

우선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TAA)’의 협력을 구체화해 선보인다. 지난해 7월 SK텔레콤은 도이체텔레콤(DT)과 e&, 싱텔 등과 함께 GTA A를 발족하고 AI 사업 협력의 물꼬를 텄다. 같은 해 10월엔 DT와 통신사향(向) 특화 LLM을 공동 개발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이번 MWC 무대에서 ‘텔코 LLM’을 앞세운 통신사발 AI 혁신을 소개한다. 기존 통신업의 로직과 지식을 학습한 특화 LLM을 개발해 신규 서비스는 물론 고객 관리·마케팅 등 영역에도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AI 기반 6G 시뮬레이터와 AI를 활용한 오픈랜 최적화 기술 등을 알리는 공간도 마련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KT, 글로벌 통신사 수장 만나 현안 논의

김영섭 대표, GSMA CEO 미팅 참석

김영섭 KT 대표가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모바일월드콘그레스(MWC 2024)’에서 글로벌 통신사 수장들을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KT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오는 26일(현지시간)부터 29일까지 열리는 MWC 2024에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김영섭 대표는 한국 통신사 대표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CEO 보드 미팅에 참석한다. 김 대표는 MWC를 주관하는 GSMA의 국내 유일 이사회 멤버이다.

오승필 기술혁신부부장(CTO), 김광동 CR실장, 이상기 전략실 글로벌사업개발담당 상무 등 주요 임원들 또한 각각 기술, 정책, 전략 워킹 그룹에 참

가해 6G와 차세대 네트워크, 글로벌 정책 이슈, 거대언어모델(LLM)과 양자통신 산업 등 미래 통신을 위한 세부 이젠다에 대해 토의한다.

오 부부장의 경우 27일 오전 9시부터 MWC 현장에서 열리는 ‘CTO GTI 서밋 키노트’ 단상에도 오른다. 그는 K T CTO로서 미래 산업을 견인하기 위한 AI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통신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KT는 올해 MWC에서 ‘미래를 만드는 디지털 혁신 파트너’라는 주제로 ‘넥스트 5G’와 ‘AI 라이프’ 등 2개 테마 존으로 전시관을 꾸미고,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과 AI 혁신 기술을 통해 달라질 미래상을 선보인다. /구남영 기자

도민과 함께하는 경남개발공사

지속가능
ESG 경영으로
도민 행복을
추구하고,
미래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